

#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결과

## ■ 개 요

- 일 시 : 2018. 10. 10.(수) 14:30~15:30
- 장 소 :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 오챠드하우스
- 인 원 : 10명(도 3, 평창군 3, 삼양목장 2, 하늘목장 2)
  - (강원도 3) 강호덕 산악관광담당, 박명희 · 박연수 주무관
  - (평창군 3) 한윤수 문화관광과장, 박세영 주무관, 산림과 이미진 주무관
  - (삼양목장 2) 권영식 부장, 이기섭 대리
  - (하늘목장 2) 최재돈 목장장, 이대규 부장
- 주요내용 : 대관령 산악관광사업(민간·지자체) 발굴 등 협의

## ■ 회의내용

구 분	회 의 내 용
강원도 강호덕 산악관광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난 9.20. 국회에서 통과된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산악관광 규제특례(6개 법률)가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대관령 산악관광(곤돌라, 산악열차 등)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.</li> <li>○ 따라서, 「초지법」,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상사업(민간투자, 지자체투자)을 발굴·모색하고자 실무회의 개최 배경 설명</li> <li>○ 회의서류(도면)를 참조하여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방안을 10.15.(월)까지 제시 요구</li> <li>○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? ⇒ (평창군 문화관광과장)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겠음</li> <li>○ 산악관광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함께 추진하여야 함으로 TF팀 구성(인력파견 1명)과 산악관광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 공동 추진 요청</li> </ul>
하늘목장 최재돈 목장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늘목장의 산악열차 설치지역은 모두 국유지로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하늘목장은 편입면적만큼 대부지를 반지하여야 함으로 하늘목장이 사업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것이 우려됨 ⇒ (산악관광담당)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.</li> </ul>

구 분	주 요 내 용
삼양목장 권영식 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삼양목장은 곤돌라 뿐만 아니라, 산악글램핑 시설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, 도면상 설치가능지역은 있는데 현장여건은 그렇지 않음.</li> <li>⇒ (산악관광담당) 산악글램핑 설치지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곤돌라 시설부터라도 추진 검토 필요</li> <li>⇒ 향후, 문서로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겠으며, 제출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평창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.</li> <li>* 올림픽레저시 순환관광벨트(진부역~삼양목장)에 대한 산악트램도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하여 추진</li> </ul>
평창군 한윤수 문화관광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올림픽레저시 순환관광벨트(진부역~삼양목장)가 산악트램으로 추진 될 경우 업무담당 부서가 불명확함.</li> <li>⇒ (산악관광담당) 트램의 경우,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, 도시철도법, 궤도운송법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함으로 별도 부서가 구성(토목, 행정, 녹지 등)되어 추진하여야 될 것임.</li> </ul>
강원도 박명희 주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새로 지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삼양목장의 곤돌라 시설 저촉여부?</li> <li>⇒ (평창군 문화관광과장) 집수구역 반대편으로 해당하지 않음.</li> </ul>

## ■ 향후계획

- 목장별 민간투자 가능사업 파악(10.16.까지)
- 삼양목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상황 파악(10.17.까지)
- 산악트램 추진상황에 대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협의(10.19.까지)
- 산악관광사업(민간투자, 지자체투자) 2차 실무회의 개최(10.24)
- 산악관광사업 타당성검토 공동용역(도,평창군) 추진(10.31까지)

붙임 : 회의 주요 장면(사진) 1부. 끝.



< 산악관광사업(민간투자, 지자체투자) 추진배경 등 설명 : 산악관광담당 >